



제3회 세계여성경제포럼

# The 3rd WORLD WOMEN ECONOMIC FORUM

관계의 힘: 여성, 공감의 미래를 만들다

2014년 10월 30일(목) 09:00 ~ 18:00  
세빛섬 FIC홀(2F)

 이데일리  이데일리TV





제3회 세계여성경제포럼

# The 3rd WORLD WOMEN ECONOMIC FORUM

관계의 힘: 여성, 공감의 미래를 만든다

2014년 10월 30일(목) 09:00 ~ 18:00  
세빛섬 FIC홀(2F)

 이데일리

 이데일리TV

# 행사개요

행사명

제3회 세계여성경제포럼  
The 3rd World Women Economic Forum

주제

관계의 힘 : 여성, 공감의 미래를 만들다

일시

2014. **10. 30(목)** 09:00~18:00

장소

세빛섬(가빛) FIC홀(2F)

주최

 **이데일리**     **이데일리TV**



제3회 세계여성경제포럼

관계의 힘 :

# 여성, 공감의 미래를 만들다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말입니다. 200년 전 말이라 해도 키에르케고르의 단언은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첨단기기가 늘어나고 복잡·다원화됐지만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동안 크게 바뀐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의 역할입니다. 여성은 이제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주도하고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막아섰던 유리천장은 이미 깨졌습니다. 걸출한 여성리더가 세계정치를 쥐락펴락하고 도전적인 여성 CEO가 기업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더 이상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거나 소수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여성이 아직도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데일리 '제3회 세계여성경제포럼'이 우리 시대의 지성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해법을 찾아볼까 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관계의 힘: 여성, 공감의 미래를 만들다'입니다.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상, 사람과 시간을 이어주는 끈입니다. 성공을 꿈꾸는 여성이라면 그 관계의 끈을 잡고 당기고 묶어내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서 너, 우리로 확장되는 관계에서 나오는 힘은 거대합니다. 그 힘의 근원은 소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 치열하게 형성된 공감이야말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공감이 만드는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소통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유리천장을 어떻게 뚫을까를 고민하기에 앞서 관계를 가로막는 유리벽부터 과감하게 부수자고 제안할까 합니다.

꼭 함께 자리하셔서 여성의 말과 생각을 통해 오늘의 나를 진단하고 내일의 우리를 설계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곽재선



# 프로그램

시간	Session	Speakers (안)
09:00~09:30 (30')	개회식	개회사 : <b>곽재선</b> 이데일리 회장    축사 : <b>정홍원</b> 국무총리
09:30~10:00 (30')	기조연설	행복과 성공, 딜레마는 없다
		발제 : <b>아니카 소렌스탐</b>
10:00~10:30 (30')	대담	대담 : <b>박원순</b> 서울특별시장 / <b>아니카 소렌스탐</b> / <b>조주희</b> ABC 뉴스 지국장
10:30~10:50 (20')	Break	
10:50~12:00 (70')	세션 1	싱글보다 더블, 더블보다 트리플
		발제 / 대담 : <b>박웅현</b>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 <b>강신주</b> 철학자
12:00~13:20 (80')	Lunch	
13:20~13:50 (30')	Talk Concert	다른여자 다른남자, 음악으로 말을 걸다 : <b>손승연 &amp; 윤건</b>
13:50~15:00 (70')	세션 2	야한 야심, 숨길건가 드러낼 건가
		사회 : <b>김태훈</b> 팝 칼럼니스트 / 패널 : <b>손지애</b> 前 아리랑국제방송 CEO
15:00~15:20 (20')	Break	
15:20~16:30 (70')	세션 3	맷고 끓고 채우고 다진다
		대담 : <b>조주희</b> ABC 뉴스 지국장 / <b>나영석</b> PD / <b>손미나</b> 손미나엔컴퍼니 대표
16:30~16:50 (20')	Break	
16:50~18:00 (70')	세션 4	적과도 동침 : 매이지 말고 품어라
		사회 : TBD 패널 : <b>정유선</b> 조지 메이슨대학교 연구교수 / <b>홍석천</b> 방송인
18:00	폐회식	폐회사 : <b>곽재선</b> 이데일리 회장

# 대표 연사 소개



전설적인 골프 여제

**아니카 소렌스탐 / 前LPGA 골퍼 겸 사업가**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여자 프로골프선수인 아니카 소렌스탐은 은퇴 후 사업가로 변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출신으로 LPGA 사상 4개 대회 연속 우승을 이룬 3번째 선수이며, 최초로 60타 벽을 깬 선수로 유명하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그녀는 15년 동안 가장 권위 있는 여성 골퍼였고, 수많은 상을 거머쥐면서 여성 골프에 유례없는 관심을 끌어 모아 여성 스포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사업과 가족에 집중하기 위해 2008년 은퇴하여 골프 아카데미, 파이낸셜 그룹, 의류 콜렉션과 최고급 와인 등의 사업가로 변신하였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엄마로서의 모습으로 가족과 함께하였다. 가족의 행복과 사업가라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온 그녀에게 일과 행복에 대한 답을 들으려 한다.



한국 광고계의 거장

**박웅현 / TBWA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현재 TBWA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있는 박웅현은 제일기획에서부터 시작해 칸 국제광고제와 아시아퍼시픽광고제 심사위원을 맡았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광고계의 거장으로 새로운 생각, 좋은 생각을 찾아 사람들과 나누기를 좋아한다. 우리나라 대표 카피라이터이자 20대 딸을 둔 아빠로서 여성들이 가진 관계의 힘을 설파하고, 철학자 강신주와의 대담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사랑과 자유의 철학자

**강신주 / 철학자**

'대중과 소통하는 거리의 철학자'로 불리는 그는 철학적 사유를 직설적 화법으로 쏟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강단에서 벗어나 대중 강연과 책을 통해 우리 시대의 인문학자가 되었다. 새로운 철학적 소통과 사유로 모든 사람이 철학자인 세상을 꿈꾼다. 동양철학 전공자이면서 서양철학의 흐름에도 능한 그는 쉽게 읽히는 철학을 지향한다. '자유로운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스스로 도는 팬이가 되라고 설파해온 그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여성들의 관계를 해부한다.



한국을 알리는 글로벌 리더

**손지애 / 아리랑 국제방송 CEO**

현재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방문 교수로 있는 손지애 전 아리랑TV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일조한 인물이다. 손 전 대표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CNN 서울 지국장을 거쳐 2010년에는 서울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홍보비서관으로도 활약했다. 화려한 이력 뒤에 숨겨진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 그리고 그녀를 있게 했던 가족까지. 그녀의 성공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 대표 연사 소개



500만 여성의 대표  
**박원순 / 서울특별시장**

20년간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다 2011년 시민후보로 서울시장에 출마, 35대 시장으로 당선됐다. 시장 취임 이후 공유경제, 협동조합 등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상생과 공존의 경제모형을 구축하는데 노력했다. 2014년 연임에 성공하면서 2기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00만 여성을 대표해 여성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최소화 등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써왔다. 박 시장은 관계의 달인으로도 통한다. 시정 운영에 핵심으로 꼽는 것 역시 '소통과 경청'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직접 운용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에는 여성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골프 여제' 아니카 소렌스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여성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한다.



욕망마저 아름다운 글로벌 특파원  
**조주희 / ABC뉴스 서울 자국장**

1999년부터 워싱턴포스트 서울 특파원과 ABC 뉴스 한국 자국장을 겸임하고 있는 그녀는 학계와 방송을 넘나드는 전 방위적 글로벌 미디어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ABC 뉴스에서 선정한 세계 글로벌 디지털 기자 7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며, 2007년 그레이시 어워드 우수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하였다.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그녀는 이번 포럼에서 맺고 끊고 채우고 다지는 관계의 기술을 풀어낼 예정이다.



모험을 즐기는 돈키호테  
**나영석 / PD**

2001년 KBS에 입사, '출발 드림팀' '산정미팅 장미의 전쟁' 조연출을 거쳐 '여걸 파이브' '여걸 식스'를 연출하다 국민 예능 '박 2일'로 스타 PD가 됐다. 2013년 12년 정든 KBS를 떠나 CJ E&M에 새롭게 등지를 튼 이후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은 그는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 등 배낭 여행 프로젝트로 국내 예능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참신한 기획과 신선한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편견과 싸워 이긴 그녀  
**정유선 / 조지 메이슨 대학교 연구교수**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교수가 됐다. 컴퓨터 음성 보조기기의 도움을 받아 강의하는 그녀는 수업 전 몇 배나 되는 시간을 준비하여 강의한다. 2012년에는 그 노력을 인정받아 학생들이 뽑은 '조지 메이슨 대학 최고 교수상'을 받기도 했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한계를 딛고 일과 가정 모두에서 성공을 일군 그녀의 이야기는 또 다른 기적의 씨앗이 되어 희망을 꽃피울 것이다.

# 참가신청 안내

아래 온라인 등록 방법을 참고하시어 온라인 참가등록을 반드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사전등록을 완료하신 분들에 한해 행사장 입장이 가능합니다.

- 1 [www.wweef.or.kr](http://www.wweef.or.kr) 접속
- 2 참가신청등록 메뉴
- 3 초청자 등록
- 4 고유번호 입력 (WWEF2014)

## 1 [www.wweef.or.kr](http://www.wweef.or.kr) 접속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for the 3rd World Women Economic Forum. The navigation bar includes '포럼소개', '프', '2', '등록', '미디어', and '지난 포럼'. The main header reads 'The 3rd World Women Economic Forum' with the dates '2014.10.30(Thu) 09:00 - 18:00 / Fosteringland Seoul, Korea'. The '등록' (Registration) section is active, showing '등록신청' and '등록확인' options. The '등록신청' area features a banner with the theme '관계의 힘: 여성, 공감의 미래를 만든다' (The Power of Relationship: Women, Form the Future of Empathy). Below the banner are four registration options, each with a '신청하기' button: 1. 초청자 등록 (Invited Registration) for those invited by the forum; 2. 프레스 등록 (Press Registration) for media members; 3. 일반 등록 (General Registration) for those who can purchase a ticket; 4. 대학원(생)등록 (University Student Registration) for students. At the bottom, a box indicates the '초청장고유번호' (Invited Registration ID) is 'WWEF2014'.

참가문의

Tel. 02-3772-0377 | E-mail. [forum@edaily.co.kr](mailto:forum@edaily.co.kr)

# 행사장 안내

## 세빛섬(가빛)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반포동)

 02-707-8849

 지하철 이용 시 3, 7, 9호선 고속터미널역 8-1번 출구(약650m, 도보 약15분)

 버스 이용 시

- 고속터미널 앞 하차

빨강(광역) 9408,9500,9501,9510, 9800,9802

파랑(간선) 142,143,148,360,362,401,462,540,640,642,643

초록(지선) 3414,3422,4212,4318,5413,6411

공항버스 6000,6020

- 반포한강공원 하차 405,740

 자가용 이용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반포동)

네비게이션 목적지 “반포한강공원 or 반포한강공원주차장”

